

정론

무궁토록 조선은 빛나라!

가없이 맑고 푸른 하늘아래 인민의 환희와 영광이 파도처럼 설레이고있다. 유구반만년력사이해 오늘처럼 민족의 존엄 하늘에 닿고 오늘처럼 시대가 들끓으며 나배칠 때가 언제 있어보았는가. 영원한 태양의 력사가 흐르고 위대한 선군명장의 기상으로 무궁강대한 이 조신의 앞길에 백두의 정기를 안은 힘찬 발걸음과 더불어 더욱더 휘황한 미래가 펼쳐졌다.

은 세상을 격동시킨 9월의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에 이어 장엄함과 황홀함의 절정을 펼친 10월의 경축광장에 이르기까지 이 땅은 실로 화산폭발과 같은 대경사, 대사변으로 전례없이 끓고있다. 걸어온 65년에 대한 긍지높은 추억이 나 새인을 경탄시킨 국력과 단결의 시구만으로는 오늘의 이 사변의 폭과 무게를 다 말할수 없다.

위대한 령, 김일성조선의 억척불변의 단결기둥이 또 한번 튼튼히 세워졌으며 강대하고 번영하는 오늘에서 보다 높은 명마루를 향하여 노도와 같이 나아갈수 있는 미래에로의 광활한 대로가 활짝 열렸다.

분명 우리는 듣고있으며 심장의 눈으로 보고있다. 백두산 줄기내려 삼천리에 그 냇과 맥을 뿜는 이 땅에서 울린 인민의 환오, 승리의 발걸음은 우리의 운명이며 행복인 이 조선의 오늘과 미래를 무궁강대하고 무궁부흥하는 천만년으로 이어놓은 세기적행운이며 민족사적사변이다.

오늘의 언덕에 서서 걸어온 민족의 기나긴 세월을 돌이켜보고 세계우에 거연히 서있는 이 조신의 모습을 다시 보라. 위대한 그의 심장속의 자존심과 긍지로 가슴 들먹이며 이 땅의 이름을 새로운 강국의 이름으로 땀땀이 부른다. 100년전만 해도 땅과 국호는 물론 언어와 성마저 빼앗겨야 했던 작고 불우했던 이 나라가 아니었던가. 기적이니 신화라는 말로써도 동이 닿지 않았을만큼 조신의 비극은 세기와 세기를 뛰어넘어 그 모습과 국호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우리 장군님에 대한 전인민적인 호모의정이 그대로 분출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곧 위대한 김정일동지이고 우리 당의 필승불패성은 우리 장군님의 높은신 권위이고 비범한 평도의 위력이다. 고금동서의 정치사를 헤쳐보면 우리 당과 같이 그 개척기로부터 완성기에 이르는 전기간 그 명백이 변함없이 순결하게, 굳건하게 이어진 당은 그 어디에도 없다. 혁명의 대가 한번 바귀고 두번, 세번 바귀며 때때로 당의 사상과 명도의 중심이 흔들리고 변색되어 종당에는 국가와 혁명의 과업을 가져온 실패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전인민적인 호모의정이 그대로 분출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곧 위대한 김정일동지이고 우리 당의 필승불패성은 우리 장군님의 높은신 권위이고 비범한 평도의 위력이다. 고금동서의 정치사를 헤쳐보면 우리 당과 같이 그 개척기로부터 완성기에 이르는 전기간 그 명백이 변함없이 순결하게, 굳건하게 이어진 당은 그 어디에도 없다. 혁명의 대가 한번 바귀고 두번, 세번 바귀며 때때로 당의 사상과 명도의 중심이 흔들리고 변색되어 종당에는 국가와 혁명의 과업을 가져온 실패들이 얼마나 많은가.

가없이 맑고 푸른 하늘아래 인민의 환희와 영광이 파도처럼 설레이고있다. 유구반만년력사이해 오늘처럼 민족의 존엄 하늘에 닿고 오늘처럼 시대가 들끓으며 나배칠 때가 언제 있어보았는가. 영원한 태양의 력사가 흐르고 위대한 선군명장의 기상으로 무궁강대한 이 조신의 앞길에 백두의 정기를 안은 힘찬 발걸음과 더불어 더욱더 휘황한 미래가 펼쳐졌다.

위대한 령, 김일성조선의 억척불변의 단결기둥이 또 한번 튼튼히 세워졌으며 강대하고 번영하는 오늘에서 보다 높은 명마루를 향하여 노도와 같이 나아갈수 있는 미래에로의 광활한 대로가 활짝 열렸다.

오늘의 언덕에 서서 걸어온 민족의 기나긴 세월을 돌이켜보고 세계우에 거연히 서있는 이 조신의 모습을 다시 보라. 위대한 그의 심장속의 자존심과 긍지로 가슴 들먹이며 이 땅의 이름을 새로운 강국의 이름으로 땀땀이 부른다.

우리 장군님에 대한 전인민적인 호모의정이 그대로 분출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곧 위대한 김정일동지이고 우리 당의 필승불패성은 우리 장군님의 높은신 권위이고 비범한 평도의 위력이다. 고금동서의 정치사를 헤쳐보면 우리 당과 같이 그 개척기로부터 완성기에 이르는 전기간 그 명백이 변함없이 순결하게, 굳건하게 이어진 당은 그 어디에도 없다. 혁명의 대가 한번 바귀고 두번, 세번 바귀며 때때로 당의 사상과 명도의 중심이 흔들리고 변색되어 종당에는 국가와 혁명의 과업을 가져온 실패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전인민적인 호모의정이 그대로 분출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곧 위대한 김정일동지이고 우리 당의 필승불패성은 우리 장군님의 높은신 권위이고 비범한 평도의 위력이다. 고금동서의 정치사를 헤쳐보면 우리 당과 같이 그 개척기로부터 완성기에 이르는 전기간 그 명백이 변함없이 순결하게, 굳건하게 이어진 당은 그 어디에도 없다. 혁명의 대가 한번 바귀고 두번, 세번 바귀며 때때로 당의 사상과 명도의 중심이 흔들리고 변색되어 종당에는 국가와 혁명의 과업을 가져온 실패들이 얼마나 많은가.

가없이 맑고 푸른 하늘아래 인민의 환희와 영광이 파도처럼 설레이고있다. 유구반만년력사이해 오늘처럼 민족의 존엄 하늘에 닿고 오늘처럼 시대가 들끓으며 나배칠 때가 언제 있어보았는가. 영원한 태양의 력사가 흐르고 위대한 선군명장의 기상으로 무궁강대한 이 조신의 앞길에 백두의 정기를 안은 힘찬 발걸음과 더불어 더욱더 휘황한 미래가 펼쳐졌다.

가없이 맑고 푸른 하늘아래 인민의 환희와 영광이 파도처럼 설레이고있다. 유구반만년력사이해 오늘처럼 민족의 존엄 하늘에 닿고 오늘처럼 시대가 들끓으며 나배칠 때가 언제 있어보았는가. 영원한 태양의 력사가 흐르고 위대한 선군명장의 기상으로 무궁강대한 이 조신의 앞길에 백두의 정기를 안은 힘찬 발걸음과 더불어 더욱더 휘황한 미래가 펼쳐졌다.

위대한 령, 김일성조선의 억척불변의 단결기둥이 또 한번 튼튼히 세워졌으며 강대하고 번영하는 오늘에서 보다 높은 명마루를 향하여 노도와 같이 나아갈수 있는 미래에로의 광활한 대로가 활짝 열렸다.

오늘의 언덕에 서서 걸어온 민족의 기나긴 세월을 돌이켜보고 세계우에 거연히 서있는 이 조신의 모습을 다시 보라. 위대한 그의 심장속의 자존심과 긍지로 가슴 들먹이며 이 땅의 이름을 새로운 강국의 이름으로 땀땀이 부른다.

우리 장군님에 대한 전인민적인 호모의정이 그대로 분출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곧 위대한 김정일동지이고 우리 당의 필승불패성은 우리 장군님의 높은신 권위이고 비범한 평도의 위력이다. 고금동서의 정치사를 헤쳐보면 우리 당과 같이 그 개척기로부터 완성기에 이르는 전기간 그 명백이 변함없이 순결하게, 굳건하게 이어진 당은 그 어디에도 없다. 혁명의 대가 한번 바귀고 두번, 세번 바귀며 때때로 당의 사상과 명도의 중심이 흔들리고 변색되어 종당에는 국가와 혁명의 과업을 가져온 실패들이 얼마나 많은가.

가없이 맑고 푸른 하늘아래 인민의 환희와 영광이 파도처럼 설레이고있다. 유구반만년력사이해 오늘처럼 민족의 존엄 하늘에 닿고 오늘처럼 시대가 들끓으며 나배칠 때가 언제 있어보았는가. 영원한 태양의 력사가 흐르고 위대한 선군명장의 기상으로 무궁강대한 이 조신의 앞길에 백두의 정기를 안은 힘찬 발걸음과 더불어 더욱더 휘황한 미래가 펼쳐졌다.

가없이 맑고 푸른 하늘아래 인민의 환희와 영광이 파도처럼 설레이고있다. 유구반만년력사이해 오늘처럼 민족의 존엄 하늘에 닿고 오늘처럼 시대가 들끓으며 나배칠 때가 언제 있어보았는가. 영원한 태양의 력사가 흐르고 위대한 선군명장의 기상으로 무궁강대한 이 조신의 앞길에 백두의 정기를 안은 힘찬 발걸음과 더불어 더욱더 휘황한 미래가 펼쳐졌다.

가없이 맑고 푸른 하늘아래 인민의 환희와 영광이 파도처럼 설레이고있다. 유구반만년력사이해 오늘처럼 민족의 존엄 하늘에 닿고 오늘처럼 시대가 들끓으며 나배칠 때가 언제 있어보았는가. 영원한 태양의 력사가 흐르고 위대한 선군명장의 기상으로 무궁강대한 이 조신의 앞길에 백두의 정기를 안은 힘찬 발걸음과 더불어 더욱더 휘황한 미래가 펼쳐졌다.

위대한 령, 김일성조선의 억척불변의 단결기둥이 또 한번 튼튼히 세워졌으며 강대하고 번영하는 오늘에서 보다 높은 명마루를 향하여 노도와 같이 나아갈수 있는 미래에로의 광활한 대로가 활짝 열렸다.

오늘의 언덕에 서서 걸어온 민족의 기나긴 세월을 돌이켜보고 세계우에 거연히 서있는 이 조신의 모습을 다시 보라. 위대한 그의 심장속의 자존심과 긍지로 가슴 들먹이며 이 땅의 이름을 새로운 강국의 이름으로 땀땀이 부른다.

우리 장군님에 대한 전인민적인 호모의정이 그대로 분출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곧 위대한 김정일동지이고 우리 당의 필승불패성은 우리 장군님의 높은신 권위이고 비범한 평도의 위력이다. 고금동서의 정치사를 헤쳐보면 우리 당과 같이 그 개척기로부터 완성기에 이르는 전기간 그 명백이 변함없이 순결하게, 굳건하게 이어진 당은 그 어디에도 없다. 혁명의 대가 한번 바귀고 두번, 세번 바귀며 때때로 당의 사상과 명도의 중심이 흔들리고 변색되어 종당에는 국가와 혁명의 과업을 가져온 실패들이 얼마나 많은가.

가없이 맑고 푸른 하늘아래 인민의 환희와 영광이 파도처럼 설레이고있다. 유구반만년력사이해 오늘처럼 민족의 존엄 하늘에 닿고 오늘처럼 시대가 들끓으며 나배칠 때가 언제 있어보았는가. 영원한 태양의 력사가 흐르고 위대한 선군명장의 기상으로 무궁강대한 이 조신의 앞길에 백두의 정기를 안은 힘찬 발걸음과 더불어 더욱더 휘황한 미래가 펼쳐졌다.

가없이 맑고 푸른 하늘아래 인민의 환희와 영광이 파도처럼 설레이고있다. 유구반만년력사이해 오늘처럼 민족의 존엄 하늘에 닿고 오늘처럼 시대가 들끓으며 나배칠 때가 언제 있어보았는가. 영원한 태양의 력사가 흐르고 위대한 선군명장의 기상으로 무궁강대한 이 조신의 앞길에 백두의 정기를 안은 힘찬 발걸음과 더불어 더욱더 휘황한 미래가 펼쳐졌다.

가없이 맑고 푸른 하늘아래 인민의 환희와 영광이 파도처럼 설레이고있다. 유구반만년력사이해 오늘처럼 민족의 존엄 하늘에 닿고 오늘처럼 시대가 들끓으며 나배칠 때가 언제 있어보았는가. 영원한 태양의 력사가 흐르고 위대한 선군명장의 기상으로 무궁강대한 이 조신의 앞길에 백두의 정기를 안은 힘찬 발걸음과 더불어 더욱더 휘황한 미래가 펼쳐졌다.

위대한 령, 김일성조선의 억척불변의 단결기둥이 또 한번 튼튼히 세워졌으며 강대하고 번영하는 오늘에서 보다 높은 명마루를 향하여 노도와 같이 나아갈수 있는 미래에로의 광활한 대로가 활짝 열렸다.

오늘의 언덕에 서서 걸어온 민족의 기나긴 세월을 돌이켜보고 세계우에 거연히 서있는 이 조신의 모습을 다시 보라. 위대한 그의 심장속의 자존심과 긍지로 가슴 들먹이며 이 땅의 이름을 새로운 강국의 이름으로 땀땀이 부른다.

우리 장군님에 대한 전인민적인 호모의정이 그대로 분출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곧 위대한 김정일동지이고 우리 당의 필승불패성은 우리 장군님의 높은신 권위이고 비범한 평도의 위력이다. 고금동서의 정치사를 헤쳐보면 우리 당과 같이 그 개척기로부터 완성기에 이르는 전기간 그 명백이 변함없이 순결하게, 굳건하게 이어진 당은 그 어디에도 없다. 혁명의 대가 한번 바귀고 두번, 세번 바귀며 때때로 당의 사상과 명도의 중심이 흔들리고 변색되어 종당에는 국가와 혁명의 과업을 가져온 실패들이 얼마나 많은가.

가없이 맑고 푸른 하늘아래 인민의 환희와 영광이 파도처럼 설레이고있다. 유구반만년력사이해 오늘처럼 민족의 존엄 하늘에 닿고 오늘처럼 시대가 들끓으며 나배칠 때가 언제 있어보았는가. 영원한 태양의 력사가 흐르고 위대한 선군명장의 기상으로 무궁강대한 이 조신의 앞길에 백두의 정기를 안은 힘찬 발걸음과 더불어 더욱더 휘황한 미래가 펼쳐졌다.

가없이 맑고 푸른 하늘아래 인민의 환희와 영광이 파도처럼 설레이고있다. 유구반만년력사이해 오늘처럼 민족의 존엄 하늘에 닿고 오늘처럼 시대가 들끓으며 나배칠 때가 언제 있어보았는가. 영원한 태양의 력사가 흐르고 위대한 선군명장의 기상으로 무궁강대한 이 조신의 앞길에 백두의 정기를 안은 힘찬 발걸음과 더불어 더욱더 휘황한 미래가 펼쳐졌다.

가없이 맑고 푸른 하늘아래 인민의 환희와 영광이 파도처럼 설레이고있다. 유구반만년력사이해 오늘처럼 민족의 존엄 하늘에 닿고 오늘처럼 시대가 들끓으며 나배칠 때가 언제 있어보았는가. 영원한 태양의 력사가 흐르고 위대한 선군명장의 기상으로 무궁강대한 이 조신의 앞길에 백두의 정기를 안은 힘찬 발걸음과 더불어 더욱더 휘황한 미래가 펼쳐졌다.

위대한 령, 김일성조선의 억척불변의 단결기둥이 또 한번 튼튼히 세워졌으며 강대하고 번영하는 오늘에서 보다 높은 명마루를 향하여 노도와 같이 나아갈수 있는 미래에로의 광활한 대로가 활짝 열렸다.

오늘의 언덕에 서서 걸어온 민족의 기나긴 세월을 돌이켜보고 세계우에 거연히 서있는 이 조신의 모습을 다시 보라. 위대한 그의 심장속의 자존심과 긍지로 가슴 들먹이며 이 땅의 이름을 새로운 강국의 이름으로 땀땀이 부른다.

우리 장군님에 대한 전인민적인 호모의정이 그대로 분출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곧 위대한 김정일동지이고 우리 당의 필승불패성은 우리 장군님의 높은신 권위이고 비범한 평도의 위력이다. 고금동서의 정치사를 헤쳐보면 우리 당과 같이 그 개척기로부터 완성기에 이르는 전기간 그 명백이 변함없이 순결하게, 굳건하게 이어진 당은 그 어디에도 없다. 혁명의 대가 한번 바귀고 두번, 세번 바귀며 때때로 당의 사상과 명도의 중심이 흔들리고 변색되어 종당에는 국가와 혁명의 과업을 가져온 실패들이 얼마나 많은가.

가없이 맑고 푸른 하늘아래 인민의 환희와 영광이 파도처럼 설레이고있다. 유구반만년력사이해 오늘처럼 민족의 존엄 하늘에 닿고 오늘처럼 시대가 들끓으며 나배칠 때가 언제 있어보았는가. 영원한 태양의 력사가 흐르고 위대한 선군명장의 기상으로 무궁강대한 이 조신의 앞길에 백두의 정기를 안은 힘찬 발걸음과 더불어 더욱더 휘황한 미래가 펼쳐졌다.

가없이 맑고 푸른 하늘아래 인민의 환희와 영광이 파도처럼 설레이고있다. 유구반만년력사이해 오늘처럼 민족의 존엄 하늘에 닿고 오늘처럼 시대가 들끓으며 나배칠 때가 언제 있어보았는가. 영원한 태양의 력사가 흐르고 위대한 선군명장의 기상으로 무궁강대한 이 조신의 앞길에 백두의 정기를 안은 힘찬 발걸음과 더불어 더욱더 휘황한 미래가 펼쳐졌다.

가없이 맑고 푸른 하늘아래 인민의 환희와 영광이 파도처럼 설레이고있다. 유구반만년력사이해 오늘처럼 민족의 존엄 하늘에 닿고 오늘처럼 시대가 들끓으며 나배칠 때가 언제 있어보았는가. 영원한 태양의 력사가 흐르고 위대한 선군명장의 기상으로 무궁강대한 이 조신의 앞길에 백두의 정기를 안은 힘찬 발걸음과 더불어 더욱더 휘황한 미래가 펼쳐졌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캄 팔 라
우 간 다 공 화 국 대 통 령
요 웨 리 카 구 라 무 쎌 베 니 각 하
나는 우간다독립 48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에서 존재하는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고 사회경제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노력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99 (2010)년 10월 5일 평 양

발 라 보
적 도 기 네 공 화 국 대 통 령
오 비 양 느 게 마 으 바 쏘 고 각 하
나는 적도기네독립 42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공동의 리익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친선적인 적도기네인민에게 끊임없는 사회경제적발전과 번영이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99 (2010)년 10월 7일 평 양



주제의 빛발은... (Caption for the image above)

동 태 관

당의 품속에서 빛나는 값높은 삶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의 시대, 투쟁의 시대에 살고있는 우리 청년들은 주체혁명위업에 한몸바치는데 있어서는 영광으로 여기고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자기의 모든 정력과 지혜를 바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당앞에 다진 심장의 맹세를 변함없이 지켜가며 수천척지하막장에 서 석탄층산으로 조국의 부강번영에 적극 이바지한 친성년탄광 7개 김혁청년

한 생을 해바라기처럼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최순일동무는 아버지수령님과 영애를 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진행된 8차대회에 참가하여 토론하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었다.

그는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한가슴에 받아안기에는 너무나 분에 넘친 사랑이었고 믿음이었다. 행복의 그 시각 그의 눈앞으로는 믿음과 사랑으로 이어진 잊지 못할 나날들이 환처럼 흘러갔다.

...바로 3년전 29명의 청년들과 함께 김혁청년돌격대기발을 휘날리며 친성년탄광으로 진출한 최순일동무는 그달음으로 막장에 들어갔다. 바로 그 다음날이었다. 막장으로 찾아온 한 일꾼이 그의 두손을 덤시 잡아먹어 적정애 젖은 목소리로 말하는것이였다.

《순일 동무, 기뻐 하오. 위대한 장군님께서 동무의 소행을 보고받으시고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이런 현상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시면

당적 품속에서 빛나는 값높은 삶

돌격대 대장 최순일동무. 우리는 그의 모습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로 키워주는 어머니당의 위대한 사랑의 품에 대하여. 오직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철칙의 신념과 의지, 순결한 향심과 의리로 당의 평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정신세계에 대하여 다시금 뜨겁게 생각하게 된다.

당적 품속에서 빛나는 값높은 삶. 이는 영광, 이 행복을 무순말로 다 표현할수 있던 말이다. 가슴속에 품어넣지는 격정을 담아 최순일동무는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이렇게 소리높이 웅변했다.

...방의 품속에서 빛나는 값높은 삶. 우리는 그의 모습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로 키워주는 어머니당의 위대한 사랑의 품에 대하여. 오직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철칙의 신념과 의지, 순결한 향심과 의리로 당의 평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정신세계에 대하여 다시금 뜨겁게 생각하게 된다.

당적 품속에서 빛나는 값높은 삶. 이는 영광, 이 행복을 무순말로 다 표현할수 있던 말이다. 가슴속에 품어넣지는 격정을 담아 최순일동무는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이렇게 소리높이 웅변했다.

당적 품속에서 빛나는 값높은 삶. 이는 영광, 이 행복을 무순말로 다 표현할수 있던 말이다. 가슴속에 품어넣지는 격정을 담아 최순일동무는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이렇게 소리높이 웅변했다.

당적 품속에서 빛나는 값높은 삶. 이는 영광, 이 행복을 무순말로 다 표현할수 있던 말이다. 가슴속에 품어넣지는 격정을 담아 최순일동무는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이렇게 소리높이 웅변했다.

당적 품속에서 빛나는 값높은 삶. 이는 영광, 이 행복을 무순말로 다 표현할수 있던 말이다. 가슴속에 품어넣지는 격정을 담아 최순일동무는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이렇게 소리높이 웅변했다.

천성청년탄광 7개 김혁청년 돌격대 대장 최순일동무

국가수훈의 영예를 지니고 씩씩하게 열을 지어 탄광구내를 행진해가던 행복넘친 날들...

그런데 오늘은 또다시 아버지 수령님과 영애를 하는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신 영광의 대회장에서 토론까지 하게 되었으니 이 영광, 이 행복을 무순말로 다 표현할수 있던 말이다.

가슴속에 품어넣지는 격정을 담아 최순일동무는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이렇게 소리높이 웅변했다.

당적 품속에서 빛나는 값높은 삶. 이는 영광, 이 행복을 무순말로 다 표현할수 있던 말이다. 가슴속에 품어넣지는 격정을 담아 최순일동무는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이렇게 소리높이 웅변했다.

당적 품속에서 빛나는 값높은 삶. 이는 영광, 이 행복을 무순말로 다 표현할수 있던 말이다. 가슴속에 품어넣지는 격정을 담아 최순일동무는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이렇게 소리높이 웅변했다.

당적 품속에서 빛나는 값높은 삶. 이는 영광, 이 행복을 무순말로 다 표현할수 있던 말이다. 가슴속에 품어넣지는 격정을 담아 최순일동무는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이렇게 소리높이 웅변했다.

당적 품속에서 빛나는 값높은 삶. 이는 영광, 이 행복을 무순말로 다 표현할수 있던 말이다. 가슴속에 품어넣지는 격정을 담아 최순일동무는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이렇게 소리높이 웅변했다.

당적 품속에서 빛나는 값높은 삶. 이는 영광, 이 행복을 무순말로 다 표현할수 있던 말이다. 가슴속에 품어넣지는 격정을 담아 최순일동무는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이렇게 소리높이 웅변했다.

까지 계획을 수행할수 없다는것은 불보듯 뻔하였다. 깊은 땅속에서 예견치 않았던 물주머니와 맞닿았을지 어쩔수 없는것이 아닌가 하고는 대원들도 있었다. 바로 그때 최순일동무의 목소리가 막장을 울려퍼졌다.

《동무들, 우리는 당앞에 다진 결의를 절대로 어길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저않는다면 먼 후날 우리의 자식들이 자기 부모님을 당의 사랑과 믿음도 모르고 산 인간들이라고 비웃을것입니다. 한결음도 물러서지 맙시다.》

《결사전을 벌리자!》, 《장군님께서 아시는 우리 돌격대의 영예를 떨치자!》라는 웨침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돌격대원들은 교대를 이어가며 허리치는 물속에서 착암기를 역세게 틀어잡았다. 앞장에는 최순일동무가 서있었다. 그는 자판을 뜨지 않고 어렵고 힘든 모퉁이에 애를 들여대며 대원들을 고무하였다. 한몸이 그대로 착암기가 되고 등발이 되어서라도 다진 맹세를 결사관철하려는 그의 헌신적인 모습은 대원들의 혁명적정열을 더욱 끓여받치게 하였다.

돌격대원들은 석수를 때면 들어나갈 믿음직한 기동감으로 키우기 위해 바친 최순일동무의 헌신적인 노력이 크게 깃들었다.

수집명의 청년들을 이끌고 새 출발의 첫걸음을 댄 그는 나이와 경력이 서로 다른 그들을 하나로 묶어세우는데 힘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돌격대속도 탄광에서 지어주지만을 앉아서 기다리지

에 입학하여 공부를 마친 후 새로운 일터에서 사업합격을 권고할 때에도 최순일동무는 탄권을 떠날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의 믿음과 사랑이면 저는 더 바랄것이 없습니다.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탄부로 살겠습니다.》

연세나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한생의 끝까지 어머니 우리 당을 따라 보답의 한걸음 가고 또 가려지는것이 최순일동무의 철칙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당적 품속에서 빛나는 값높은 삶. 이는 영광, 이 행복을 무순말로 다 표현할수 있던 말이다. 가슴속에 품어넣지는 격정을 담아 최순일동무는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이렇게 소리높이 웅변했다.

당적 품속에서 빛나는 값높은 삶. 이는 영광, 이 행복을 무순말로 다 표현할수 있던 말이다. 가슴속에 품어넣지는 격정을 담아 최순일동무는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이렇게 소리높이 웅변했다.

당적 품속에서 빛나는 값높은 삶. 이는 영광, 이 행복을 무순말로 다 표현할수 있던 말이다. 가슴속에 품어넣지는 격정을 담아 최순일동무는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이렇게 소리높이 웅변했다.

당적 품속에서 빛나는 값높은 삶. 이는 영광, 이 행복을 무순말로 다 표현할수 있던 말이다. 가슴속에 품어넣지는 격정을 담아 최순일동무는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이렇게 소리높이 웅변했다.



행복의 웃음꽃, 불꽃바다가 펼쳐진 유원지의 밤. 개성청년공원에서. 김진명 찍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 브라질 자유조국당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던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영일동지는 13일 벨몬트 차머스 두스 쾰푸스국제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브라질 자유조국당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박관평부부장을 비롯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꾼들이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단장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과 조선로동당창건 65년에 즈음하여 이렇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그는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당창건

주조 무관단 평양문화전시관 참관

조선로동당창건 65년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13일 평양문화전시관을 참관하였다.

무관단원들은 자주시대 혁명적당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조선로동당을 계속불패의 항도적력방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평도의 현명성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이러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의 고전적적작들과 우리 나라 도시들을 돌아보았다.

참관을 마치고 그들은 감상록에 글을 남겼다.

이들을 수령으로 모시였기에 조선은 강국으로 전변될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또한 김정일종합대학 전자도서관과 수령관, 당창건기념탑, 개신문, 우의대, 대동강과수종합농장 등을 참관하였으며 대집단체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하였다.

이제 앞서 윤길상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미동포전국연합회측하단, 장운국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뉴질랜드동포연합회측하단과 전진영 재카나다조선인연합회 교문이 평양을 떠나갔다.

재중항일혁명투사, 항일혁명렬사, 항일혁명투쟁연고자, 중국 항일혁명렬사, 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들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그들은 만경대기념관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만경봉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방문을 마치고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상렬선생의 아들

상소위는 만경대교향집을 뜻으로 김일성주석에 대한 글을 써서 격정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일제지 혁명의 길에 나서신 경애하는 주석께서는

조선의 해방을 이룩하시었다고 말하였다.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채세영의 손녀 채이려는 김일성주석과 같은신분은 이 세상에 없다.

몽골대사관 성원들 정방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

쏘드브랴넨 후벨바르 주조 몽골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13일 사리원시 조선몽골친선 정방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을 하였다.

손님들은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평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당면한 농사일을 다그치고있는 이곳 농장원들의 일손을 도와 풍가음을 하였다.

대사관성원들은 농장에 지원물자를 넘겨주었다.

해외동포축하단들이 떠나갔다

조선로동당창건 65년 경축행사에 참가하였던 최은복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뉴질랜드동포연합회측하단, 박용희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캐나다동포연합회측하단, 장운국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뉴질랜드동포연합회측하단과 전진영 재카나다조선인연합회 교문이 평양을 떠나갔다.

이제 앞서 윤길상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미동포전국연합회측하단, 장운국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뉴질랜드동포연합회측하단과 전진영 재카나다조선인연합회 교문이 평양을 떠나갔다.

이제 앞서 윤길상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미동포전국연합회측하단, 장운국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뉴질랜드동포연합회측하단과 전진영 재카나다조선인연합회 교문이 평양을 떠나갔다.

이제 앞서 윤길상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미동포전국연합회측하단, 장운국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뉴질랜드동포연합회측하단과 전진영 재카나다조선인연합회 교문이 평양을 떠나갔다.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일군대표단이 떠나갔다

대표단이 13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대표단이 13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대표단이 13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대표단이 13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마자르공산주의로동당대표단을 위하여 연회 마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마자르공산주의로동당 대표단을 위하여 13일 평양고려호텔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류트메르 플라워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마자르공산주의로동당대표단이 초대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와 리영철부부장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김영일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두 당이 오빠전부터 반제, 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길에서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온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마자르공산주의로동당이 혁명적원칙을 변함없이 고수하면서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이고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마자르공산주의로동당이 조선로동당과의 관계발전을 귀중히 여기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여주고있는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두 당사이의 친선관계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류트메르 플라워위원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조선인민이 조선로동당창건 65년을 성대히 경축한 력사적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모범을 창조

하였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이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을 직접 목격할수 있게 된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하였다.

연말전에 진행된 당대표자회의에서는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또다시 높이 추대하였다고 하면서 그는 마자르공산주의자들은 이를 열렬히 축하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선군의 기치따라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연대할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로 연설을 마쳤다.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 만세!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류트메르 플라워위원장의 건강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재일본조선인축하단 평양과 지방의 여러곳 참관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창건 65년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이 평양과 지방의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당창건사적관을 찾은 축하단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행하시후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자료들과 사진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또한 김정일종합대학 전자도서관과 수령관, 당창건기념탑, 개신문, 우의대, 대동강과수종합농장 등을 참관하였으며 대집단체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하였다.

강의실 등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종합대학에 둘러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슴깊이 새기었다.

이어 그들은 현대적으로 꾸

려진 수영관을 참관하였다.

축하단은 이밖에 대동강과수종합농장, 남승원화학원합기공업소, 대동강타원공장, 최진2호 발전소건설장 등을 참관하였다.

리비아경제협조사무소 대표 위대한 9월 1일혁명 41년에 즈음하여 연회 마련

리비아에서의 위대한 9월 1일혁명 41년에 즈음하여 리비아에서 위대한 9월 1일혁명 41년에 즈음하여 리비아에서 위대한 9월 1일혁명 41년에 즈음하여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리영철부부장, 김형준 외무성 부장, 문성모 외교통상부 국제협력담당관, 문성모 외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모야메르 외 가디파하드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마자르공산주의로동당대표단 도착

류트메르 플라워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마자르공산주의로동당대표단이 13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리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대표단을 맞이하였다.

리우 팡부총 권총국대표단 국장을 단장으로 13일 비로 하는 중국 행기 평양에 국가지적소유 도착하였다.

오스트리아로조련맹 조약철폐 련방비서 귀국

올리베르 요 방비서가 13일 스키카르에 일 렬차로 귀국 스트리아로조련 맹 좌익블락 련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아가야 할 일관한 조국통일원칙

당창건 65돐을 맞이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인류가 경탄해마지 않는 백두산위인들을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역사적인 승리와 세기적인 변혁을 이루어야 하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을 감회없이 돌이켜보았다.

조선로동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민족자주위업, 조국통일위업을 끝없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면서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는것을 숭고한 사명으로 간직한 우리 당에 있어서 조국통일은 지상의 과업으로 나타났다. 우리 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부활 출발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제시하고 그것을 시종일관하게 견지하면서 조국통일위업을 이끌어왔다.

우리 당이 내세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은 가장 정당하고 애국애족적인 조국통일원칙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어렵고 복잡한 정황이 조성되더라도 조국통일 3대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며야 하며 이 원칙에 철저히 의거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다.

자주권을 그 누구도 빼앗을수 없는 나라와 민족의 신성한 권리며 자주 독립국의 첫째가는 지표이다. 우리나라가 전국적범위에서 자주권을 실현하는데는 민족자주의 원칙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민족의 자주권을 보장해 주며 민족의 이익을 수호해 주며 민족의 독립과 자주권을 보장해 준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민족의 자주권을 보장해 준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민족의 자주권을 보장해 준다.

우리 당이 내세운 민족자주의 원칙은 이 문제의 해결방향을 가장 정확하게 밝혀주고있다.

조국의 결단망을 무력으로 강압한 외세는 남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배권을 확립하고 사회의 자주적발전을 심히 역해하고있으며 조국통일위업을 가로막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까지 내버려두는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룩하는것은 조국통일위업실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까지 내버려두는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어렵고 복잡한 정황이 조성되더라도 조국통일 3대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며야 하며 이 원칙에 철저히 의거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다.

자주권을 그 누구도 빼앗을수 없는 나라와 민족의 신성한 권리며 자주 독립국의 첫째가는 지표이다. 우리나라가 전국적범위에서 자주권을 실현하는데는 민족자주의 원칙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민족의 자주권을 보장해 주며 민족의 이익을 수호해 주며 민족의 독립과 자주권을 보장해 준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민족의 자주권을 보장해 준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민족의 자주권을 보장해 준다.

우리 당이 내세운 민족자주의 원칙은 이 문제의 해결방향을 가장 정확하게 밝혀주고있다.

조국의 결단망을 무력으로 강압한 외세는 남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배권을 확립하고 사회의 자주적발전을 심히 역해하고있으며 조국통일위업을 가로막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까지 내버려두는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룩하는것은 조국통일위업실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까지 내버려두는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어렵고 복잡한 정황이 조성되더라도 조국통일 3대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며야 하며 이 원칙에 철저히 의거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다.

자주권을 그 누구도 빼앗을수 없는 나라와 민족의 신성한 권리며 자주 독립국의 첫째가는 지표이다. 우리나라가 전국적범위에서 자주권을 실현하는데는 민족자주의 원칙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민족의 자주권을 보장해 주며 민족의 이익을 수호해 주며 민족의 독립과 자주권을 보장해 준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민족의 자주권을 보장해 준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민족의 자주권을 보장해 준다.

우리 당이 내세운 민족자주의 원칙은 이 문제의 해결방향을 가장 정확하게 밝혀주고있다.

조국의 결단망을 무력으로 강압한 외세는 남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배권을 확립하고 사회의 자주적발전을 심히 역해하고있으며 조국통일위업을 가로막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까지 내버려두는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룩하는것은 조국통일위업실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까지 내버려두는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어렵고 복잡한 정황이 조성되더라도 조국통일 3대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며야 하며 이 원칙에 철저히 의거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이 내세운 민족자주의 원칙은 이 문제의 해결방향을 가장 정확하게 밝혀주고있다.

조국의 결단망을 무력으로 강압한 외세는 남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배권을 확립하고 사회의 자주적발전을 심히 역해하고있으며 조국통일위업을 가로막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까지 내버려두는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룩하는것은 조국통일위업실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까지 내버려두는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어렵고 복잡한 정황이 조성되더라도 조국통일 3대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며야 하며 이 원칙에 철저히 의거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이 내세운 민족자주의 원칙은 이 문제의 해결방향을 가장 정확하게 밝혀주고있다.

조국의 결단망을 무력으로 강압한 외세는 남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배권을 확립하고 사회의 자주적발전을 심히 역해하고있으며 조국통일위업을 가로막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까지 내버려두는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룩하는것은 조국통일위업실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까지 내버려두는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어렵고 복잡한 정황이 조성되더라도 조국통일 3대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며야 하며 이 원칙에 철저히 의거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이 내세운 민족자주의 원칙은 이 문제의 해결방향을 가장 정확하게 밝혀주고있다.

조국의 결단망을 무력으로 강압한 외세는 남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배권을 확립하고 사회의 자주적발전을 심히 역해하고있으며 조국통일위업을 가로막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까지 내버려두는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룩하는것은 조국통일위업실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까지 내버려두는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어렵고 복잡한 정황이 조성되더라도 조국통일 3대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며야 하며 이 원칙에 철저히 의거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이 내세운 민족자주의 원칙은 이 문제의 해결방향을 가장 정확하게 밝혀주고있다.

조국의 결단망을 무력으로 강압한 외세는 남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배권을 확립하고 사회의 자주적발전을 심히 역해하고있으며 조국통일위업을 가로막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까지 내버려두는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룩하는것은 조국통일위업실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까지 내버려두는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어렵고 복잡한 정황이 조성되더라도 조국통일 3대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며야 하며 이 원칙에 철저히 의거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야 합니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재우즈베끼스판동포들 경축모임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재우즈베끼스판동포들 경축모임이 5일 경축모임을 진행하였다.

주요내용 6.15 공동선언실천 해외추진위원회 독립국가협동체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과 재우즈베끼스판동포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우즈베끼스판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모임에서 연설자는 위대한 김정일주석남편께서는 주제 34(194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혁명하게 명도하시었다고 말하였다.

조선로동당이 창건됨으로써 조선인민은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의 민중적인 정치적 참모부를 가지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이 걸어온 65년의 장구한 력사는 주체혁명의 혁명적 위력과 불패성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한 승려로운 로정이고 그는 언급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오늘 위대한 김정일주석남편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선군혁명의 항도적력량을 모으고 강화발전시켰으며 공화국은 반제반미대결전과

사회의수호전에서 승리만을 이룩하고있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이 어떠한 어려운수행의 관행 100을 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줄것에 대한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전제 인민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명도하고있고 하면서 선의의공포들이 조국의 강성번영과 통일위업실현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러 동포애인들의 공원이 있었다.

변하지 않은 적대관념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며 대결전쟁병위를 악랄하게 고취하는 극우보수파들의 망둥은 내외여론의 강력한 합의규약을 불러일으켰다. 남조선의 평범한 단계들과 인민들은 《주적》소동을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북남관계 계속 악화시키고 동족과 끝까지 대결하려는 범죄적기도를 날로 폭로탄핵하면서 그러한 망둥을 광경 견어칠 것을 요구해나섰다.

공지에 물론 남조선당국은 올해 《국방백서》에 북을 《주적》으로 명기하지 않는 한편으로 북의 적은 북조선인민이다. 라는 문구가 몇주간을 괴우면서 항의여론을 높였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보 다싶이 남조선보수파자들은 겉으로는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을 넣지 않을듯이 하면서도 실제로는 북을 《주적》으로 명기하지 않는 한편으로 북의 적은 북조선인민이다. 라는 문구가 몇주간을 괴우면서 항의여론을 높였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보 다싶이 남조선보수파자들은 겉으로는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을 넣지 않을듯이 하면서도 실제로는 북을 《주적》으로 명기하지 않는 한편으로 북의 적은 북조선인민이다. 라는 문구가 몇주간을 괴우면서 항의여론을 높였다고 지적하였다.

조선인 희생자들의 유골문제 해결을 주장

보고자와 연설자는 일본정부가 아직도 조선인간제전쟁희생자들의 유골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지 않고있는데 대해 비난하였다.

일본정부는 마땅히 과거 조선인간제전쟁희생자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지려 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일본이 조선인희생자들의 유골문제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유해를 모두 가족들에게

보고자들과 연설자는 일본정부가 아직도 조선인간제전쟁희생자들의 유골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지 않고있는데 대해 비난하였다.

일본정부는 마땅히 과거 조선인간제전쟁희생자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지려 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일본이 조선인희생자들의 유골문제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유해를 모두 가족들에게

보고자들과 연설자는 일본정부가 아직도 조선인간제전쟁희생자들의 유골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지 않고있는데 대해 비난하였다.

일본정부는 마땅히 과거 조선인간제전쟁희생자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지려 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일본이 조선인희생자들의 유골문제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유해를 모두 가족들에게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진지를 철벽으로!

사회의주의는 인민대중의 확립, 자본주의는 근로대중의 무덤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소행이 나날이 늘어만 가는 우리 사회에 또 한층 미덕의 꽃이 활짝 피어났다.

자기의 붉은 피와 정성을 바쳐 두 어린 생명을 구원한 한순희 동무.

그는 개천철도국병원 소아과에서 일하는 처녀간호원이다.

사장에 처한 한 철도종업원의 아이를 위해, 평범한 가정의 첫아이를 위해 그는 친혈육이상의 사랑과 지성을 바쳤다. 그 희생적인 헌신은 비단 에메랄드에 발휘된듯이 아 니다. 인간의 생명을 책임진 보건의업이 된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가 환자들을 위하여 지새운 밤은 얼마이며 길고결은 길은 또 얼마였던가.

하지만 그는 구태여 그것을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 고마운 우리 제도를 받들어 헌성을 다 하여 보답의 꽃을 피우고싶은 것이 그의 소원이다.

하기에 지난 4월 경에하는 장군님의 은정어린 감사를 받아 않는 뜻있는 자리에서 한순희 동무는 말하였다.

전세대들이 발휘한 지극한 정성의 모범을 본받았을뿐이라고, 우리 시대 공민이라면 누구나 발휘할수 있는 평범한 소행이라고!

그가 친척도 혈육도 아닌 남의 자에게서 서슴없이 피를 넣어 주며 간호원이 되에 어머니가 되어 지새웠을 낮과 밤을

그러보느라니 이런 사실이 되 새겨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부르조이개입주의가 바로 자본주의사회의 온갖 모순과 사회악을 낳는다.»

얼마전 일본의 기후현에서는 35살 난 녀성이 몇년전에 자기의 딸들을 죽이고 막내딸 딸이 죽어가고 한 사건이 밝혀져 사람들을 경악케 하였다.

이 녀성은 몇년전 갑자기 위 급한 병에 걸린 자기의 넷째딸과 함께 병원에 입원하였다. 당시 넷째딸은 8개월밖에 안되는 어린 젖먹이였다.

그런데 반대로 젖먹이를 돌보아 할 그 녀성은 어찌된 영문인지 병원에 입원한 날부터 오호러 자기의 딸을 더욱 더한시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약간 차도를 보일듯 하던 그 젖먹이의 병이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그의 딸은 몇시간 더 살지 못하고 병원에서 숨지고말았다.

그로부터 몇년이 지나 이번에는 그 녀성이 다섯번째딸을 안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섯번째딸은 그 녀성의 막내딸이었는데 그 애의 병은 조금만 흉을 들이면 얼마든지 고칠수 있는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처럼에서는 27살 난 녀성이 낳은 4개월짜리 안되는 자기 딸을 너무나 자제리지게 운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죽였다.

후우오카현의 한 녀성은 6살 난 아이들이 자기 딸을 듣지 않는다 고 그를 살해하였다.

캐틀레미가 판을 치고 인종이 매마른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을 놀래우는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고있다.

어머니가 뒤를 그만둔 집 승만도 못한 사고방식을 가진 이런 인간 어린 추물들이 판을

과 이 한 방 화 사건

얼마전 남조선의 어느 한 집에서 새벽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침실에서 잠을 자던 40대의 녀성과 그의 딸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사물을 넘기지 못하고 모두 숨졌다.

화재의 원인이 밝혀졌을 때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 녀성의 집에 불을 지른 범죄자는 다음날 피해자와 한통에에서 산 15살 난 소년이었다던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욱 놀라게 한것은 그 소년이

사라진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소행이 나날이 늘어만 가는 우리 사회에 또 한층 미덕의 꽃이 활짝 피어났다.

자기의 붉은 피와 정성을 바쳐 두 어린 생명을 구원한 한순희 동무.

그는 개천철도국병원 소아과에서 일하는 처녀간호원이다.

사장에 처한 한 철도종업원의 아이를 위해, 평범한 가정의 첫아이를 위해 그는 친혈육이상의 사랑과 지성을 바쳤다. 그 희생적인 헌신은 비단 에메랄드에 발휘된듯이 아 니다. 인간의 생명을 책임진 보건의업이 된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가 환자들을 위하여 지새운 밤은 얼마이며 길고결은 길은 또 얼마였던가.

하지만 그는 구태여 그것을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 고마운 우리 제도를 받들어 헌성을 다 하여 보답의 꽃을 피우고싶은 것이 그의 소원이다.

하기에 지난 4월 경에하는 장군님의 은정어린 감사를 받아 않는 뜻있는 자리에서 한순희 동무는 말하였다.

전세대들이 발휘한 지극한 정성의 모범을 본받았을뿐이라고, 우리 시대 공민이라면 누구나 발휘할수 있는 평범한 소행이라고!

그가 친척도 혈육도 아닌 남의 자에게서 서슴없이 피를 넣어 주며 간호원이 되에 어머니가 되어 지새웠을 낮과 밤을

그러보느라니 이런 사실이 되 새겨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부르조이개입주의가 바로 자본주의사회의 온갖 모순과 사회악을 낳는다.»

얼마전 일본의 기후현에서는 35살 난 녀성이 몇년전에 자기의 딸들을 죽이고 막내딸 딸이 죽어가고 한 사건이 밝혀져 사람들을 경악케 하였다.

이 녀성은 몇년전 갑자기 위 급한 병에 걸린 자기의 넷째딸과 함께 병원에 입원하였다. 당시 넷째딸은 8개월밖에 안되는 어린 젖먹이였다.

그런데 반대로 젖먹이를 돌보아 할 그 녀성은 어찌된 영문인지 병원에 입원한 날부터 오호러 자기의 딸을 더욱 더한시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약간 차도를 보일듯 하던 그 젖먹이의 병이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그의 딸은 몇시간 더 살지 못하고 병원에서 숨지고말았다.

그로부터 몇년이 지나 이번에는 그 녀성이 다섯번째딸을 안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섯번째딸은 그 녀성의 막내딸이었는데 그 애의 병은 조금만 흉을 들이면 얼마든지 고칠수 있는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처럼에서는 27살 난 녀성이 낳은 4개월짜리 안되는 자기 딸을 너무나 자제리지게 운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죽였다.

후우오카현의 한 녀성은 6살 난 아이들이 자기 딸을 듣지 않는다 고 그를 살해하였다.

캐틀레미가 판을 치고 인종이 매마른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을 놀래우는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고있다.

어머니가 뒤를 그만둔 집 승만도 못한 사고방식을 가진 이런 인간 어린 추물들이 판을

사라진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소행이 나날이 늘어만 가는 우리 사회에 또 한층 미덕의 꽃이 활짝 피어났다.

자기의 붉은 피와 정성을 바쳐 두 어린 생명을 구원한 한순희 동무.

그는 개천철도국병원 소아과에서 일하는 처녀간호원이다.

사장에 처한 한 철도종업원의 아이를 위해, 평범한 가정의 첫아이를 위해 그는 친혈육이상의 사랑과 지성을 바쳤다. 그 희생적인 헌신은 비단 에메랄드에 발휘된듯이 아 니다. 인간의 생명을 책임진 보건의업이 된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가 환자들을 위하여 지새운 밤은 얼마이며 길고결은 길은 또 얼마였던가.

하지만 그는 구태여 그것을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 고마운 우리 제도를 받들어 헌성을 다 하여 보답의 꽃을 피우고싶은 것이 그의 소원이다.

하기에 지난 4월 경에하는 장군님의 은정어린 감사를 받아 않는 뜻있는 자리에서 한순희 동무는 말하였다.

전세대들이 발휘한 지극한 정성의 모범을 본받았을뿐이라고, 우리 시대 공민이라면 누구나 발휘할수 있는 평범한 소행이라고!

그가 친척도 혈육도 아닌 남의 자에게서 서슴없이 피를 넣어 주며 간호원이 되에 어머니가 되어 지새웠을 낮과 밤을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진지를 철벽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소행이 나날이 늘어만 가는 우리 사회에 또 한층 미덕의 꽃이 활짝 피어났다.

사회의주의는 인민대중의 확립, 자본주의는 근로대중의 무덤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소행이 나날이 늘어만 가는 우리 사회에 또 한층 미덕의 꽃이 활짝 피어났다.

변하지 않은 적대관념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며 대결전쟁병위를 악랄하게 고취하는 극우보수파들의 망둥은 내외여론의 강력한 합의규약을 불러일으켰다.

조선인 희생자들의 유골문제 해결을 주장

보고자와 연설자는 일본정부가 아직도 조선인간제전쟁희생자들의 유골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지 않고있는데 대해 비난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재우즈베끼스판동포들 경축모임 진행

조선인 희생자들의 유골문제 해결을 주장

보고자와 연설자는 일본정부가 아직도 조선인간제전쟁희생자들의 유골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지 않고있는데 대해 비난하였다.

변하지 않은 적대관념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며 대결전쟁병위를 악랄하게 고취하는 극우보수파들의 망둥은 내외여론의 강력한 합의규약을 불러일으켰다.

조선인 희생자들의 유골문제 해결을 주장

보고자와 연설자는 일본정부가 아직도 조선인간제전쟁희생자들의 유골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지 않고있는데 대해 비난하였다.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진지를 철벽으로!

사회의주의는 인민대중의 확립, 자본주의는 근로대중의 무덤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소행이 나날이 늘어만 가는 우리 사회에 또 한층 미덕의 꽃이 활짝 피어났다.

자기의 붉은 피와 정성을 바쳐 두 어린 생명을 구원한 한순희 동무.

그는 개천철도국병원 소아과에서 일하는 처녀간호원이다.

사장에 처한 한 철도종업원의 아이를 위해, 평범한 가정의 첫아이를 위해 그는 친혈육이상의 사랑과 지성을 바쳤다. 그 희생적인 헌신은 비단 에메랄드에 발휘된듯이 아 니다. 인간의 생명을 책임진 보건의업이 된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가 환자들을 위하여 지새운 밤은 얼마이며 길고결은 길은 또 얼마였던가.

하지만 그는 구태여 그것을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 고마운 우리 제도를 받들어 헌성을 다 하여 보답의 꽃을 피우고싶은 것이 그의 소원이다.

하기에 지난 4월 경에하는 장군님의 은정어린 감사를 받아 않는 뜻있는 자리에서 한순희 동무는 말하였다.

전세대들이 발휘한 지극한 정성의 모범을 본받았을뿐이라고, 우리 시대 공민이라면 누구나 발휘할수 있는 평범한 소행이라고!

그가 친척도 혈육도 아닌 남의 자에게서 서슴없이 피를 넣어 주며 간호원이 되에 어머니가 되어 지새웠을 낮과 밤을

사회의주의는 인민대중의 확립, 자본주의는 근로대중의 무덤

그러보느라니 이런 사실이 되 새겨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부르조이개입주의가 바로 자본주의사회의 온갖 모순과 사회악을 낳는다.»

얼마전 일본의 기후현에서는 35살 난 녀성이 몇년전에 자기의 딸들을 죽이고 막내딸 딸이 죽어가고 한 사건이 밝혀져 사람들을 경악케 하였다.

이 녀성은 몇년전 갑자기 위 급한 병에 걸린 자기의 넷째딸과 함께 병원에 입원하였다. 당시 넷째딸은 8개월밖에 안되는 어린 젖먹이였다.

그런데 반대로 젖먹이를 돌보아 할 그 녀성은 어찌된 영문인지 병원에 입원한 날부터 오호러 자기의 딸을 더욱 더한시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약간 차도를 보일듯 하던 그 젖먹이의 병이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그의 딸은 몇시간 더 살지 못하고 병원에서 숨지고말았다.

그로부터 몇년이 지나 이번에는 그 녀성이 다섯번째딸을 안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섯번째딸은 그 녀성의 막내딸이었는데 그 애의 병은 조금만 흉을 들이면 얼마든지 고칠수 있는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적대관념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며 대결전쟁병위를 악랄하게 고취하는 극우보수파들의 망둥은 내외여론의 강력한 합의규약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남조선의 평범한 단계들과 인민들은 《주적》소동을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북남관계 계속 악화시키고 동족과 끝까지 대결하려는 범죄적기도를 날로 폭로탄핵하면서 그러한 망둥을 광경 견어칠 것을 요구해나섰다.

공지에 물론 남조선당국은 올해 《국방백서》에 북을 《주적》으로 명기하지 않는 한편으로 북의 적은 북조선인민이다. 라는 문구가 몇주간을 괴우면서 항의여론을 높였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보 다싶이 남조선보수파자들은 겉으로는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을 넣지 않을듯이 하면서도 실제로는 북을 《주적》으로 명기하지 않는 한편으로 북의 적은 북조선인민이다. 라는 문구가 몇주간을 괴우면서 항의여론을 높였다고 지적하였다.

조선인 희생자들의 유골문제 해결을 주장

보고자와 연설자는 일본정부가 아직도 조선인간제전쟁희생자들의 유골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지 않고있는데 대해 비난하였다.

일본정부는 마땅히 과거 조선인간제전쟁희생자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지려 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일본이 조선인희생자들의 유골문제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유해를 모두 가족들에게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진지를 철벽으로!

사회의주의는 인민대중의 확립, 자본주의는 근로대중의 무덤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소행이 나날이 늘어만 가는 우리 사회에 또 한층 미덕의 꽃이 활짝 피어났다.

자기의 붉은 피와 정성을 바쳐 두 어린 생명을 구원한 한순희 동무.

그는 개천철도국병원 소아과에서 일하는 처녀간호원이다.

사장에 처한 한 철도종업원의 아이를 위해, 평범한 가정의 첫아이를 위해 그는 친혈육이상의 사랑과 지성을 바쳤다. 그 희생적인 헌신은 비단 에메랄드에 발휘된듯이 아 니다. 인간의 생명을 책임진 보건의업이 된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가 환자들을 위하여 지새운 밤은 얼마이며 길고결은 길은 또 얼마였던가.

하지만 그는 구태여 그것을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 고마운 우리 제도를 받들어 헌성을 다 하여 보답의 꽃을 피우고싶은 것이 그의 소원이다.

하기에 지난 4월 경에하는 장군님의 은정어린 감사를 받아 않는 뜻있는 자리에서 한순희 동무는 말하였다.

전세대들이 발휘한 지극한 정성의 모범을 본받았을뿐이라고, 우리 시대 공민이라면 누구나 발휘할수 있는 평범한 소행이라고!

그가 친척도 혈육도 아닌 남의 자에게서 서슴없이 피를 넣어 주며 간호원이 되에 어머니가 되어 지새웠을 낮과 밤을

사회의주의는 인민대중의 확립, 자본주의는 근로대중의 무덤

그러보느라니 이런 사실이 되 새겨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부르조이개입주의가 바로 자본주의사회의 온갖 모순과 사회악을 낳는다.»

얼마전 일본의 기후현에서는 35살 난 녀성이 몇년전에 자기의 딸들을 죽이고 막내딸 딸이 죽어가고 한 사건이 밝혀져 사람들을 경악케 하였다.

이 녀성은 몇년전 갑자기 위 급한 병에 걸린 자기의 넷째딸과 함께 병원에 입원하였다. 당시 넷째딸은 8개월밖에 안되는 어린 젖먹이였다.

그런데 반대로 젖먹이를 돌보아 할 그 녀성은 어찌된 영문인지 병원에 입원한 날부터 오호러 자기의 딸을 더욱 더한시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약간 차도를 보일듯 하던 그 젖먹이의 병이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그의 딸은 몇시간 더 살지 못하고 병원에서 숨지고말았다.

그로부터 몇년이 지나 이번에는 그 녀성이 다섯번째딸을 안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섯번째딸은 그 녀성의 막내딸이었는데 그 애의 병은 조금만 흉을 들이면 얼마든지 고칠수 있는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적대관념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며 대결전쟁병위를 악랄하게 고취하는 극우보수파들의 망둥은 내외여론의 강력한 합의규약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남조선의 평범한 단계들과 인민들은 《주적》소동을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북남관계 계속 악화시키고 동족과 끝까지 대결하려는 범죄적기도를 날로 폭로탄핵하면서 그러한 망둥을 광경 견어칠 것을 요구해나섰다.

공지에 물론 남조선당국은 올해 《국방백서》에 북을 《주적》으로 명기하지 않는 한편으로 북의 적은 북조선인민이다. 라는 문구가 몇주간을 괴우면서 항의여론을 높였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보 다싶이 남조선보수파자들은 겉으로는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을 넣지 않을듯이 하면서도 실제로는 북을 《주적》으로 명기하지 않는 한편으로 북의 적은 북조선인민이다. 라는 문구가 몇주간을 괴우면서 항의여론을 높였다고 지적하였다.

조선인 희생자들의 유골문제 해결을 주장

보고자와 연설자는 일본정부가 아직도 조선인간제전쟁희생자들의 유골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지 않고있는데 대해 비난하였다.

일본정부는 마땅히 과거 조선인간제전쟁희생자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지려 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일본이 조선인희생자들의 유골문제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유해를 모두 가족들에게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진지를 철벽으로!

사회의주의는 인민대중의 확립, 자본주의는 근로대중의 무덤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소행이 나날이 늘어만 가는 우리 사회에 또 한층 미덕의 꽃이 활짝 피어났다.

자기의 붉은 피와 정성을 바쳐 두 어린 생명을 구원한 한순희 동무.

그는 개천철도국병원 소아과에서 일하는 처녀간호원이다.

사장에 처한 한 철도종업원의 아이를 위해, 평범한 가정의 첫아이를 위해 그는 친혈육이상의 사랑과 지성을 바쳤다. 그 희생적인 헌신은 비단 에메랄드에 발휘된듯이 아 니다. 인간의 생명을 책임진 보건의업이 된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가 환자들을 위하여 지새운 밤은 얼마이며 길고결은 길은 또 얼마였던가.

하지만 그는 구태여 그것을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 고마운 우리 제도를 받들어 헌성을 다 하여 보답의 꽃을 피우고싶은 것이 그의 소원이다.

하기에 지난 4월 경에하는 장군님의 은정어린 감사를 받아 않는 뜻있는 자리에서 한순희 동무는 말하였다.

전세대들이 발휘한 지극한 정성의 모범을 본받았을뿐이라고, 우리 시대 공민이라면 누구나 발휘할수 있는 평범한 소행이라고!

그가 친척도 혈육도 아닌 남의 자에게서 서슴없이 피를 넣어 주며 간호원이 되에 어머니가 되어 지새웠을 낮과 밤을

사회의주의는 인민대중의 확립, 자본주의는 근로대중의 무덤

그러보느라니 이런 사실이 되 새겨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부르조이개입주의가 바로 자본주의사회의 온갖 모순과 사회악을 낳는다.»

얼마전 일본의 기후현에서는 35살 난 녀성이 몇년전에 자기의 딸들을 죽이고 막내딸 딸이 죽어가고 한 사건이 밝혀져 사람들을 경악케 하였다.

이 녀성은 몇년전 갑자기 위 급한 병에 걸린 자기의 넷째딸과 함께 병원에 입원하였다. 당시 넷째딸은 8개월밖에 안되는 어린 젖먹이였다.

그런데 반대로 젖먹이를 돌보아 할 그 녀성은 어찌된 영문인지 병원에 입원한 날부터 오호러 자기의 딸을 더욱 더한시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약간 차도를 보일듯 하던 그 젖먹이의 병이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그의 딸은 몇시간 더 살지 못하고 병원에서 숨지고말았다.

그로부터 몇년이 지나 이번에는 그 녀성이 다섯번째딸을 안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섯번째딸은 그 녀성의 막내딸이었는데 그 애의 병은 조금만 흉을 들이면 얼마든지 고칠수 있는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적대관념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며 대결전쟁병위를 악랄하게 고취하는 극우보수파들의 망둥은 내외여론의 강력한 합의규약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남조선의 평범한 단계들과 인민들은 《주적》소동을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북남관계 계속 악화시키고 동족과 끝까지 대결하려는 범죄적기도를 날로 폭로탄핵하면서 그러한 망둥을 광경 견어칠 것을 요구해나섰다.

공지에 물론 남조선당국은 올해 《국방백서》에 북을 《주적》으로 명기하지 않는 한편으로 북의 적은 북조선인민이다. 라는 문구가 몇주간을 괴우면서 항의여론을 높였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보 다싶이 남조선보수파자들은 겉으로는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을 넣지 않을듯이 하면서도 실제로는 북을 《주적》으로 명기하지 않는 한편으로 북의 적은 북조선인민이다. 라는 문구가 몇주간을

나 날 이 만 발 하 는 조 중 친 선 의 화 원

오늘 조중친선의 화원은 날로 만발하고있으며 이것은 국제적친선관계의 산 모범으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과 중국 인민은 조중친선의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여기며 그것을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갈 결의에 충만 되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두 나라는 산과강이 잇닿아있는 친선적 리념이더 조중친선은 두 나라로 세대혁명가들이 불려온 귀중한 공동의 재부입니다.”

조선과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며 두 나라 인민들은 각별한 친선의 정을 가지고있다.

조중친선의 두 나라 인민들의 상호적우의와 더불어 신뢰로 굳게 결합되어있는 불멸의 친선관계이다.

조선과 중국의 두 나라 인민들의 상호적우의와 더불어 신뢰로 굳게 결합되어있는 불멸의 친선관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제 72 (1983)년 6월 6일 역사적인 첫 외교방문으로 중국을 찾으신 후 동중국해를 비롯한 중국의 지도자들과 동지적우의와 친선의 정을 두리이 하시였으며 조중친선의 역사적 새대를 세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고발전되도록 하기 위하여 불멸의 로고를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 세기에 걸쳐와서 중국을 여러차례 방문하시어 조중친선의 년대기에 불멸의 업적을 수놓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이 되는 올해에 진행하신 두차례의 중화인민공화국 방문은 조중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과 인민들 사이에 맺어진 친선의 정과 동지적우의를 더욱 두터이 해나가는데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사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의 역사적 정전자인

중국의 동북지방을 돌아보시고 조중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변함없는 의지와 결심을 다시금 천명하시며 그이의 심중에 차남친것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동북지방은 항일전쟁 직후 모택동주석이 현재의 근거지들을 다 잃는다고 해도 동북만 있으면 중국혁명은 트레가 있게 된다고 언급한바와 같이 중국 혁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요충지였다. 동북지방전쟁을 비롯한 중국혁명을 사심없이 도와준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어 수많은 조선혁명가들이 동북지방에 달려가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중국의 한 도시는 선전지령과 파격적통찰력이 비껴있는 김정일동지의 조연은 중국군대의 군사작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동북해방전쟁의 주요작전의 승리를 조중친선협조의 명함과 떼어놓을 수 없다고 서술하였다.

수기애 지난 5월에 이어 8월에 중국을 또다시 방문하시어 동북지방을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환영하는 자리에서 호금도총서기는 외래친박자들을 반대하는 공동투쟁 속에서 조중친선의 역사적 뿌리가 마련된 김일성과 동북강성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방문은 두 나라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데서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동북지역 이념이나 김일성주석동지의 혁명의 발전자가 력적이며 어렵고, 김일성주석동지께서는 조선의 독립을 이룩하시였을뿐 아니라 중국혁명승리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시였다고 강조하였었다.

동지적우의와 우의를 기초한 조중친선의 뉴데는 중국인민의 항일전쟁으로 더욱 굳게 이어졌다.

조중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은 중국동북지방에서 항일전쟁과

중국해방전쟁의 불길을 함께 헤쳐온 전통을 이어 우리 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도 굳게 손잡고 영웅하게 싸워 미 제침략자들에게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대참패를 안기였으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업적으로 하여 우리 인민과 중국인민에게 각별한 존경감을 주는 잊을수 없는 력사의 땅, 조중친선의 증전지로 되었고는 동북지방,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발자취가 어린 곳집은 이 지역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국의 로세대령도자들과 함께 마련하여 주신 전통적인 조중친선의 화원인 대를 이어 더욱 활짝 꽃피워주시어는 확고부동한 의지가 어려웠다.

조중 두 나라는 지난해에 력사상 처음으로 《조중친선의 해》를 설정하고 호금도표연방과 의의는 행사들을 성의있게 진행하여 조중친선의 불매성과 생활력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1960년대에 우리 나라에서 창구형식으로 창 작되었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지도도에 따라 가군단에서 가군으로 제창조한 《홍무몽》공원이 올해에 중국의 지방들에서 진행되어 그곳 인민들의 품목같은 반항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5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70여일동안 진행된 가군 《홍무몽》공원은 중화대지의 3만 6000여 리에 조중친선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이번에 중국공산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조선로동당장 65돐을 열렬히 축하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의 정을 더욱 두터이 하고 우리 인민을 기쁘게 해주었다.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은 머지않아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을 맞이하게 된다.

60년전 중화민족의 수많은 우수한 아들딸들이 조선전선에 참전하여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서 위훈을 떨치었으며 고귀한 생명을 바치셨다.

이 나날 《함미원조보가워국의 기치》에 조중친선에서 영웅하게 싸우던 중국인민지원군의 라신교렬사가 얼음물속에 빠진 소년을 구원하고 최후를 마쳤으며 우리의 백제농민은 중국인민지원군 부상병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것과 같은 가슴 뜨거운 이야기들이 수없이 생겨났다.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기념일을 계기로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의 력사를 감회있게 돌아보는 우리 인민은 지난 8월 우리 나라에서 사할린 중국인민기업가 장정영이 라신시야바다에서 사경에 처한 우리 처녀들을 회상적으로 수원한 아름다운 소행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있다.

동방세계 바다에서 생면부지의 처녀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서슴없이 내던 중국공민의 고귀한 희생에서 우리 인민은 장구한 기간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하여온 형제적우의를 중국인민에 대한 혈연의 정을 절감하여 조중친선의 뉴데를 더욱 두터이 해나갈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

오늘 중국인민은 중국공산당의 령도 밑에 세기적락후성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천지개벽의 새로운 현실을 안아오고 있다.

지난날 외래침략 중국인민지원군 전사들과 전투이야기를 나누는 인민군전사들

세력의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으며 학살과 빈궁에 시달리던 중국인민이 오늘날 활력에 넘쳐 광활한 중화대지에 현대적으로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해 투쟁하고있다.

날로 변화발전하는 현실은 중국공산당의 정책이 중국의 실정에 부합되는 정당한 정책이며 그것이 전국의 곳곳에서 자기의 생활력을 뚜렷이 과시하고있다.

중국인민은 중국공산당이 제시한 과학적발전관을 틀어쥐고 올해에 제1차 5개년계획기간의 경제 및 사회발전목표를 완전히 실현하며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공고히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중국에서는 민족단결을 위한 사업도 추진되고있다.

각 지역, 각 부문에서 민족 단결전선교양활동을 활발히 벌이고있으며 각 민족이 함께 단결하여 분투하고 공동의 번영,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성파가 되고있다.

중국당과 정부는 시종일관 전략적전지에서 조중관계를

고도로 중시하면서 두 나라 친선관계발전에서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다.

중국인민은 사회주의강대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진심으로 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있다.

우리 인민은 형제적중국인민이 호금도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두리에 굳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화롭게 발전된 사회진보목표와 전국의 완전한 통일을 반드시 실현하리라 고 확신하고있다.

조중친선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 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념원이며 확고부동한 힘이다.

오랜 력사적뿌리와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있는 조중친선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더욱 심도 있고 활력있게 강화발전될것이다.

중국당과 정부는 시종일관 전략적전지에서 조중관계를

고도로 중시하면서 두 나라 친선관계발전에서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다.

중국인민은 사회주의강대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진심으로 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있다.

우리 인민은 형제적중국인민이 호금도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두리에 굳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화롭게 발전된 사회진보목표와 전국의 완전한 통일을 반드시 실현하리라 고 확신하고있다.

조중친선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 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념원이며 확고부동한 힘이다.

오랜 력사적뿌리와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있는 조중친선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더욱 심도 있고 활력있게 강화발전될것이다.

중국당과 정부는 시종일관 전략적전지에서 조중관계를

고도로 중시하면서 두 나라 친선관계발전에서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다.

중국인민은 사회주의강대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진심으로 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있다.

우리 인민은 형제적중국인민이 호금도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두리에 굳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화롭게 발전된 사회진보목표와 전국의 완전한 통일을 반드시 실현하리라 고 확신하고있다.

조중친선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 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념원이며 확고부동한 힘이다.

오랜 력사적뿌리와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있는 조중친선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더욱 심도 있고 활력있게 강화발전될것이다.

중국당과 정부는 시종일관 전략적전지에서 조중관계를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인터네트홈페이지는 《창건 65돐을 맞는 조선로동당에 영광이 있리라》라는 표제어를 내어낸 수필경매에 응하는 장군님의 사생활을 모시고 특집하였다. 홈페이지는 글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건설과 당활동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일성주석의 당건설사업은 오늘 김일성각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김일성각하의 선군명도에 의하여 조선로동당은 자기발전의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다. 조선로동당은 강대국건설사업에 승리로 이끌어오는 과정에 자기의 로속하고 세련된 명도명령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승리의 복수리를 높이 올리며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이 제기 위한 투쟁으로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킨 선군조선의 위력파 기상을 만방에 과시하고있다.

조선로동당장 65돐을 즈음하여 브라질과 영국의 정당, 단체들이 5일과 6일에 인터네트홈페이지에 특집하였다. 브라질 공산당 인터네트홈페이지 《베르멜유》는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경축하는 조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은 인민들을 언제나 승리로 이끄는 로속하고 세련된 당으로,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필승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리라, 부단치는 온갖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며 사회주의의위업의 한걸음 한걸음 전진하는 조선인민앞에는 조선로동당이 있다, 조선로동당이 걸어온 65살은 당의 명도야말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라는것을 실증해 주었다고 지적하였다.

홈페이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난 세기 말엽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고 강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신데 대하여 전하고 조선인민은 실생활 체험을 통하여 로동당을 따르는 길에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것을 실감하고 제독하였다. 조선로동당의 명도를 받는 조선인민의 사회주의위업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연대선진 브라질위원회 인터네트홈페이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을 모시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홈페이지는 글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늘 인민들을 이끌어 가 그들의 복수리에 귀 기울이시고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신데 대하여서와 영웅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나라 곳곳에 인민의 복리증진을 이바지하는 현대의 인민 대중봉사지들과 문화휴식터가 개건되거나 새롭게 꾸려진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블라데르 조선친선협회는 블라데르 제5호에 《조선로동당창건 65돐》, 《당대표자 회식》 등 여러 제목의 글들을 편집하였다.

블라데르 글들에서 1945년 10월 1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광범한 군로인민을 위하여 부투하는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영웅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하시어 조선로동당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는데 대하여, 특히 지난 9월 28일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그에게서 당총비서로 임명하신데 대하여, 에티오피아청년주체사상연구위원회는 블라데르 제16호에 《조선로동당마크》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블라데르 조선친선협회는 블라데르 제5호에 《조선로동당창건 65돐》, 《당대표자 회식》 등 여러 제목의 글들을 편집하였다.

블라데르 글들에서 1945년 10월 1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광범한 군로인민을 위하여 부투하는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영웅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하시어 조선로동당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는데 대하여, 특히 지난 9월 28일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그에게서 당총비서로 임명하신데 대하여, 에티오피아청년주체사상연구위원회는 블라데르 제16호에 《조선로동당마크》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아랍국가련 맹 특별수뇌자 회의 진행

아랍국가련 특별수뇌자 회의가 9일 리비아의 씨르트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련맹성원국 국가 및 정부 수반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련맹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성원국들 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었다.

회의에서는 최종성명이 채택되었다.

성명은 련맹이 성원국들의 공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을 준수할것을 미국에 요구

세계무역기구주재 중국대사가 최근 미국무역정책에 대한 우려의 심의회에서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을 준수할것을 미국에 요구하였다.

그는 미국이 보호무역정책을

미국에서 날로 극심해지는 빈곤현상

미국에서 빈곤자수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빈곤률이 15년이래 최고수준으로 높아졌다고 한다. 지난해 빈곤자수는 4300만명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미국에서 빈곤문제와 관련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50년 이래 최대규모라고 한다. 이번 빈곤인구 통계자료는 《부익, 빈익빈》 현상이 극심한 미국사회의 현실을 폭로해 주고있다.

미국의 부유계층은 인구의 0.02%에 불과하다. 이 극소수에 달하는 부유계층이 미국 국내총생산의 60%를 차지하고 특권을 행사하며 풍정거리고있다. 언젠가 미국의 한 연구사가 미국의 최하층 국민이 부유계층의 생활수준을 따라잡으려면 100년이 걸려야 할 것이라고 말한적이 있다. 결국 파장된 소리가 아니다. 미국의 현실이 바로 그렇다.

지금 미국에서는 해마다 빈곤율이 늘어날뿐 아니라 점점 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서는 겨우 생계를 유지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강조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세 에드 알리 카메니가 최근 청년과학자들과의 상봉식상에서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대해 강조하였다.

이란의 과학자들이 핵에너지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과학기술을 개발해 내어 온 성과를 거둔데 대해 인민군전사들은 그 과감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살인만행 규탄

팔레스타인민족당 수상이 8일 이스라엘의 살인만행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날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 서안지역에서 2명의 이슬람교 학생을(하마스) 살인했다고 해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강경히 경시시킴으로써 중동평화과정을 뒤선편기 위한 모든 노력을 파괴하는 위험한 행위로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공장은 나라의 세네투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자동차 생산 브라질에서 올해 첫 9개월 동안에 자동차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6% 증가되었다.

7월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여러 나라를 협조 에집트와 이란이 3일 두 나라 사이의 직항로개설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앞서 2일 이란과 튀르키스탄은 방직, 식료공업, 철도건설 등 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양해각서를 채택하였다.

한편 1월 우크라이나와 폴스카는 에네르코분야와 지역문제 해결에서 쌍무협조를 발전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러시아해군이 7일 백해수역에서 해상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 《볼라바》의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대형 전략 미사일 잠수함 《미르클러트 스킵》호에서

세계상을 뚫기 는 정치문화

정권운영경험이 《풍부한》 자민당으로서의 현 민주당정부의 일본에서 어느 하나도 눈에 차지 않는다. 당총서기 다나카 가키를 《수상》으로 하는 《제야내각》을 조직하였다고 한다. 《내각》이라고 《각료》직들도 자민당의 거두들로 채웠다.

《제야내각》 직은 이전 자민당 간사장대리 고노가 차지하였다.

결국 일본에는 두개의 《내각》이 존재하는 셈이다. 하나는 민주당주도의 내각이고 다른 하나는 야당인 자민당이 운영하는 《내각》이다.

그야말로 세상을 뚫기 는 정치문화이다.

이것이 《정치대국》을 꿈꾸며 제로라고 시대는 일본의 피어난 정치현실이다.

《무능정당》으로 민심의 손가락질을 받는 자민당이 그 주체에 집권시절을 못내 그리워하며 《제야내각》까지 만들어내고있는것이다.

머우기 가판은 그들이 집권에 대한 《자신심》에 넘쳐 너를내고있는것이다. 최근 다니가키는 《제야내각》의 첫 회합이라는데 《정권교체》 능력이 월등하다는 자신감이 있다. 《내각》의 손가락질을 받고 림해주시 바란다. 《내각》이 령해주시 바란다. 《내각》이 령해주시 바란다.

미국에서 날로 극심해지는 빈곤현상

미국에서 빈곤자수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빈곤률이 15년이래 최고수준으로 높아졌다고 한다. 지난해 빈곤자수는 4300만명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미국에서 빈곤문제와 관련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50년 이래 최대규모라고 한다. 이번 빈곤인구 통계자료는 《부익, 빈익빈》 현상이 극심한 미국사회의 현실을 폭로해 주고있다.

미국의 부유계층은 인구의 0.02%에 불과하다. 이 극소수에 달하는 부유계층이 미국 국내총생산의 60%를 차지하고 특권을 행사하며 풍정거리고있다. 언젠가 미국의 한 연구사가 미국의 최하층 국민이 부유계층의 생활수준을 따라잡으려면 100년이 걸려야 할 것이라고 말한적이 있다. 결국 파장된 소리가 아니다. 미국의 현실이 바로 그렇다.

지금 미국에서는 해마다 빈곤율이 늘어날뿐 아니라 점점 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서는 겨우 생계를 유지

정착촌건설중지를 요구

아랍국가련 성원국 의무상들이 8일 리비아의 씨르트에서 회의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정착촌건설중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하였다. 성명은 유대인정착촌건설에 계속 배여달라고 있는 이스라엘당국과서는 팔레스타인민족당과 결정을 지지하는 련맹성원국들의 입장을 천명하였

자 연 피 해

필리핀의 남부지역에서 최근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피해를 입었다. 콘콜로 1일현재 마인타노, 코라바를 비롯한 3개 주에서 많은 살림집들이 물에 잠겼고 5000여명의 주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소개되었다.

무역자, 실업자 증대

프랑스에서 8월에 무역자가 4993 000명에 달 하였다. 7월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미국에서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실업문제가 의외로 심각하게

국제형사재판소의 결정을 반대하여 집회

수단의 황트에서 9일 수단 대통령을 체포할데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결정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항의집회가 진행되었다. 집회에는 약 3000명의 각 계층 주민들이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국제형사재

항 의 시 위

오스트랄리아의 퀸슬랜드주에서 7일 보건부문 근로자들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약 1000명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당국이 보건부문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있는데 대해 항의하고 자기들의 임금을 올릴것을

미국에서 날로 극심해지는 빈곤현상

미국에서 빈곤자수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빈곤률이 15년이래 최고수준으로 높아졌다고 한다. 지난해 빈곤자수는 4300만명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미국에서 빈곤문제와 관련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50년 이래 최대규모라고 한다. 이번 빈곤인구 통계자료는 《부익, 빈익빈》 현상이 극심한 미국사회의 현실을 폭로해 주고있다.

미국의 부유계층은 인구의 0.02%에 불과하다. 이 극소수에 달하는 부유계층이 미국 국내총생산의 60%를 차지하고 특권을 행사하며 풍정거리고있다. 언젠가 미국의 한 연구사가 미국의 최하층 국민이 부유계층의 생활수준을 따라잡으려면 100년이 걸려야 할 것이라고 말한적이 있다. 결국 파장된 소리가 아니다. 미국의 현실이 바로 그렇다.

지금 미국에서는 해마다 빈곤율이 늘어날뿐 아니라 점점 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서는 겨우 생계를 유지

정착촌건설중지를 요구

아랍국가련 성원국 의무상들이 8일 리비아의 씨르트에서 회의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정착촌건설중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하였다. 성명은 유대인정착촌건설에 계속 배여달라고 있는 이스라엘당국과서는 팔레스타인민족당과 결정을 지지하는 련맹성원국들의 입장을 천명하였

자 연 피 해

필리핀의 남부지역에서 최근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피해를 입었다. 콘콜로 1일현재 마인타노, 코라바를 비롯한 3개 주에서 많은 살림집들이 물에 잠겼고 5000여명의 주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소개되었다.

무역자, 실업자 증대

프랑스에서 8월에 무역자가 4993 000명에 달 하였다. 7월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미국에서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실업문제가 의외로 심각하게

국제형사재판소의 결정을 반대하여 집회

수단의 황트에서 9일 수단 대통령을 체포할데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결정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항의집회가 진행되었다. 집회에는 약 3000명의 각 계층 주민들이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국제형사재

항 의 시 위

오스트랄리아의 퀸슬랜드주에서 7일 보건부문 근로자들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약 1000명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당국이 보건부문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있는데 대해 항의하고 자기들의 임금을 올릴것을

미국에서 날로 극심해지는 빈곤현상

미국에서 빈곤자수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빈곤률이 15년이래 최고수준으로 높아졌다고 한다. 지난해 빈곤자수는 4300만명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미국에서 빈곤문제와 관련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50년 이래 최대규모라고 한다. 이번 빈곤인구 통계자료는 《부익, 빈익빈》 현상이 극심한 미국사회의 현실을 폭로해 주고있다.

미국의 부유계층은 인구의 0.02%에 불과하다. 이 극소수에 달하는 부유계층이 미국 국내총생산의 60%를 차지하고 특권을 행사하며 풍정거리고있다. 언젠가 미국의 한 연구사가 미국의 최하층 국민이 부유계층의 생활수준을 따라잡으려면 100년이 걸려야 할 것이라고 말한적이 있다. 결국 파장된 소리가 아니다. 미국의 현실이 바로 그렇다.

지금 미국에서는 해마다 빈곤율이 늘어날뿐 아니라 점점 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서는 겨우 생계를 유지

정착촌건설중지를 요구

아랍국가련 성원국 의무상들이 8일 리비아의 씨르트에서 회의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정착촌건설중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하였다. 성명은 유대인정착촌건설에 계속 배여달라고 있는 이스라엘당국과서는 팔레스타인민족당과 결정을 지지하는 련맹성원국들의 입장을 천명하였

자 연 피 해

필리핀의 남부지역에서 최근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피해를 입었다. 콘콜로 1일현재 마인타노, 코라바를 비롯한 3개 주에서 많은 살림집들이 물에 잠겼고 5000여명의 주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소개되었다.

무역자, 실업자 증대

프랑스에서 8월에 무역자가 4993 000명에 달 하였다. 7월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미국에서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실업문제가 의외로 심각하게

국제형사재판소의 결정을 반대하여 집회

수단의 황트에서 9일 수단 대통령을 체포할데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결정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항의집회가 진행되었다. 집회에는 약 3000명의 각 계층 주민들이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국제형사재

항 의 시 위

오스트랄리아의 퀸슬랜드주에서 7일 보건부문 근로자들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약 1000명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당국이 보건부문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있는데 대해 항의하고 자기들의 임금을 올릴것을

미국에서 날로 극심해지는 빈곤현상

미국에서 빈곤자수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빈곤률이 15년이래 최고수준으로 높아졌다고 한다. 지난해 빈곤자수는 4300만명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미국에서 빈곤문제와 관련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50년 이래 최대규모라고 한다. 이번 빈곤인구 통계자료는 《부익, 빈익빈》 현상이 극심한 미국사회의 현실을 폭로해 주고있다.

미국의 부유계층은 인구의 0.02%에 불과하다. 이 극소수에 달하는 부유계층이 미국 국내총생산의 60%를 차지하고 특권을 행사하며 풍정거리고있다. 언젠가 미국의 한 연구사가 미국의 최하층 국민이 부유계층의 생활수준을 따라잡으려면 100년이 걸려야 할 것이라고 말한적이 있다. 결국 파장된 소리가 아니다. 미국의 현실이 바로 그렇다.

지금 미국에서는 해마다 빈곤율이 늘어날뿐 아니라 점점 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서는 겨우 생계를 유지

정착촌건설중지를 요구

아랍국가련 성원국 의무상들이 8일 리비아의 씨르트에서 회의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정착촌건설중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하였다. 성명은 유대인정착촌건설에 계속 배여달라고 있는 이스라엘당국과서는 팔레스타인민족당과 결정을 지지하는 련맹성원국들의 입장을 천명하였

자 연 피 해

필리핀의 남부지역에서 최근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피해를 입었다. 콘콜로 1일현재 마인타노, 코라바를 비롯한 3개 주에서 많은 살림집들이 물에 잠겼고 5000여명의 주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소개되었다.

무역자, 실업자 증대

프랑스에서 8월에 무역자가 4993 000명에 달 하였다. 7월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미국에서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실업문제가 의외로 심각하게

국제형사재판소의 결정을 반대하여 집회

수단의 황트에서 9일 수단 대통령을 체포할데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결정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항의집회가 진행되었다. 집회에는 약 3000명의 각 계층 주민들이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국제형사재

항 의 시 위

오스트랄리아의 퀸슬랜드주에서 7일 보건부문 근로자들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약 1000명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당국이 보건부문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있는데 대해 항의하고 자기들의 임금을 올릴것을

미국에서 날로 극심해지는 빈곤현상

미국에서 빈곤자수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빈곤률이 15년이래 최고수준으로 높아졌다고 한다. 지난해 빈곤자수는 4300만명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미국에서 빈곤문제와 관련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50년 이래 최대규모라고 한다. 이번 빈곤인구 통계자료는 《부익, 빈익빈》 현상이 극심한 미국사회의 현실을 폭로해 주고있다.

미국의 부유계층은 인구의 0.02%에 불과하다. 이 극소수에 달하는 부유계층이 미국 국내총생산의 60%를 차지하고 특권을 행사하며 풍정거리고있다. 언젠가 미국의 한 연구사가 미국의 최하층 국민이 부유계층의 생활수준을 따라잡으려면 100년이 걸려야 할 것이라고 말한적이 있다. 결국 파장된 소리가 아니다. 미국의 현실이 바로 그렇다.

지금 미국에서는 해마다 빈곤율이 늘어날뿐 아니라 점점 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서는 겨우 생계를 유지

정착촌건설중지를 요구

아랍국가련 성원국 의무상들이 8일 리비아의 씨르트에서 회의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정착촌건설중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하였다. 성명은 유대인정착촌건설에 계속 배여달라고 있는 이스라엘당국과서는 팔레스타인민족당과 결정을 지지하는 련맹성원국들의 입장을 천명하였

자 연 피 해

필리핀의 남부지역에서 최근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피해를 입었다. 콘콜로 1일현재 마인타노, 코라바를 비롯한 3개 주에서 많은 살림집들이 물에 잠겼고 5000여명의 주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소개되었다.

무역자, 실업자 증대

프랑스에서 8월에 무역자가 4993 000명에 달 하였다. 7월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미국에서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실업문제가 의외로 심각하게

국제형사재판소의 결정을 반대하여 집회

수단의 황트에서 9일 수단 대통령을 체포할데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결정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항의집회가 진행되었다. 집회에는 약 3000명의 각 계층 주민들이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국제형사재

항 의 시 위

오스트랄리아의 퀸슬랜드주에서 7일 보건부문 근로자들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약 1000명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당국이 보건부문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있는데 대해 항의하고 자기들의 임금을 올릴것을

미국에서 날로 극심해지는 빈곤현상

미국에서 빈곤자수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빈곤률이 15년이래 최고수준으로 높아졌다고 한다. 지난해 빈곤자수는 4300만명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미국에서 빈곤문제와 관련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50년 이래 최대규모라고 한다. 이번 빈곤인구 통계자료는 《부익, 빈익빈》 현상이 극심한 미국사회의 현실을 폭로해 주고있다.

미국의 부유계층은 인구의 0.02%에 불과하다. 이 극소수에 달하는 부유계층이 미국 국내총생산의 60%를 차지하고 특권을 행사하며 풍정거리고있다. 언젠가 미국의 한 연구사가 미국의 최하층 국민이 부유계층의 생활수준을 따라잡으려면 100년이 걸려야 할 것이라고 말한적이 있다. 결국 파장된 소리가 아니다. 미국의 현실이 바로 그렇다.

지금 미국에서는 해마다 빈곤율이 늘어날뿐 아니라 점점 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서는 겨우 생계를 유지

정착촌건설중지를 요구

아랍국가련 성원국 의무상들이 8일 리비아의 씨르트에서 회의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정착촌건설중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하였다. 성명은 유대인정착촌건설에 계속 배여달라고 있는 이스라엘당국과서는 팔레스타인민족당과 결정을 지지하는 련맹성원국들의 입장을 천명하였

자 연 피 해

필리핀의 남부지역에서 최근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피해를 입었다. 콘콜로 1일현재 마인타노, 코라바를 비롯한 3개 주에서 많은 살림집들이 물에 잠겼고 5000여명의 주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소개되었다.

무역자, 실업자 증대

프랑스에서 8월에 무역자가 4993 000명에 달 하였다. 7월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미국에서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실업문제가 의외로 심각하게